

미군 재편과 오키나와 : 기지·군대와 인권, 폭력

폭력 장치의 군대는 이동이 아니라 축소, 해체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타카사토 스즈요

기지 군대를 용서 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공동 대표

1 억제력, 속전 연습, 파병 기지-‘안전 보장’ 하의 군사 기지화 된 섬

- 1) 주둔 미군의 활동은 미군 기지 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키나와 전체가 주둔지로서 광대한 미군 기지에서 파생 되는 폭음, 연습 사고, 환경 오염, 그리고 미군의 사고 사건에 의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은 일상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다.
- 2) 오키나와는 미군이 관여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 전쟁의 파병 기지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미군의 전차, 군복은 녹색의 미채색에서 갈색의 사막의 색으로 거기에 농녹색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앞으로는 MV22오스플레이 대응을 위한 기지 건설(연안 안).
- 3) 61년 전의 미군 상륙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의 미군이 주둔했다.

27000~28000명의 군대(2005년 9월 현재, 22470)와 군속, 가족으로 50000명 이상.

- 4) 미군, 그 가족은 미일 지위 협정으로, 기지 외 행동이 자유로운 건 물론 울타리에 둘러 싸인 '기지'는 안전·안심 되는 주둔 생활이 보장 되고 있다. '이곳은 카데나 공군 기지의 경계선입니다.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 합니다. 기지 사령관의 명령에 의함'이라는 경고로 기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엄격하게 제한, 관리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이곳은 주민 지역과의 경계선입니다.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 합니다. 주민의 명령에 의함'이라는 민간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는 존재 안함

2 살상, 파괴의 훈련이 기지·군대의 목적이며, 군대는 구조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7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일 때 3명의 미군에게 강간 당한 피해 체험을 가진 여성이 멈추지 않은 미군의 폭력의 해결은 군대 철퇴 밖에 없다고 현지사에게 서간을 보냈다. 중·참 외무 위원회에서 이 편지는 오키나와의 목소리로서 취급되었으나, '미군과 자위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측면이, 완전히 빠져 있다. 균형이 잡힌생각이라고 여겨지지 않음'라고 마치무라 외상이 반론.

전후 61년에 걸친 미군 주류 하에 있어 특히 여성 성범죄

- 1) 오키나와 전쟁 종결에서 한국 전쟁 시기 까지.

오키나와 전역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 많은 수의 미군이 총으로 위협하며 여성을

발, 도로, 가족의 눈 앞에서 납치, 강간했다. 9개월의 아기(1949년), 6살의 어린이 강간 살해 사건(1955년) 피해는 연령에 관계없이 벌어짐. 결과의 출산.

2) 베트남 전쟁기

이상하리만큼 살기를 띤 미군의 무시무시 한 폭력은 기지 주변에서 미군만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들이 일명 총알받이가 되었다. 많은 수의 여성이 목이 졸려 살해 당하는 공포를 경험. 사실, 가난한 오키나와 사회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한 여성들이, 매년 2~4명이 교살 당함.

3) 일본의 복귀 후부터 현재까지 - 베트남 전쟁 후 미군은 징병 제도를 지원 제도로, ‘빈곤 징병제’

미군의 빈곤화로, 폭력은 교묘화, 만성화 되고 있음. 일본의 형법에는 강간죄는 형량이 가볍고, 미군측은 지위 협정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미군을 옹호하고, 재판에서의 대항 자세는 피해자에게 과혹한 환경이 됨. 기지 울타리는 기지와 주민 사회와의 경계선이 아님.

기지에 인접한 사회이기에 미군의 휴일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

1995년 9월 4일, 3명의 미군에 의해 12살의 소녀 강간 사건 - 노동자의 휴일

2000년 7월 3일, 미군이 중학교 2학년 생 취침 중에 침입, 강간 미수 사건 -

독립기념일

2005년 7월 3일, 10살짜리 소녀 미 공군 병사에게 강제 성 추행 폭력 - 독립

기념일

4) 군대의 본질은 살상과 파괴이며, 폭력을 합법화 한 기관, 조직이며, 구조적 폭력이다. 매일 되는 훈련, 점령지의 차별, 여성 차별, 구조적 폭력은 군대 주둔지에 공통적이다. 필리핀, 한국, 베트남, 그리고 이라크.

- 폭력 장치인 군대 내부에도 무시무시한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미군의 ‘성폭력 제로 작전’
- 2002년 아프가니스탄 공격 특수 부대의 병사 4명이 연속 해 부인을 살해.
- 아르브그레이 형무소에서 미군 병사의 이라크인 고문, 학대, 성폭력.
- 2005년 5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
- 2005년 12월, 14살의 이라크인 소녀를 강간, 가족을 태워 죽인 사실을 인멸한 것이 발각.

3 경제 공헌, 사인화, 범죄의 왜소화에 의한 기지 용인의 주둔 정책

‘이라크로부터 귀환병 3천명을 영웅으로서 환영할 것’, 미군의 프레스리리스(05.4.1)

1) **미군 주둔에 의한 경제 공헌** – 1996년 이후에 기지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훈련의 소음 등 부담은 있으나, 미군의 주둔은 지역경제의 공헌이 현저하다’ – 오키나와 제2의 고용의 장으로, 현민 한 사람 당 연간 3000달러, 아메리카 측이 독자적인 경제 공헌 조사를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 군인, 병사의 사인화 ‘좋은 이웃 정책’

주둔 미군을 ‘기지 주민’으로 위치를 정하고, 최대의 인적 자원으로서 어필함. 영어 교사, 불런티어, 기지 개방, 해안 청소.

3) 미군 범죄의 왜소화 – 미군은 프로페셔널, 아메리카 국내의 범죄율보다 낮음.

‘오키나와의 사회 전반의 범죄 발생율과 비교해 보아도 그 절반 이하’, 오키나와 대사, 미 영사, 미군 사령관. 방위시설국의 카노야시의 회답. ‘평성 16년에 있어서 미군 등의 형사법 범인의 범죄 검거 수는 미군인 등의 1000명당 약 2.4건으로 일본의 범죄율 추세는 인구 1000명당 5.4인’

특히,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의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등에 관한 특별 보고자, 디엔씨의 오키나와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2006년 6월 일본 정부 코멘트(반론)는, 미군 병사의 범죄가 2004년 이후 감소했다고 주장. 실제 이라크 파병에 의한 미군 총수의 감소는 언급하지 않고, 정확성이 결핍 된 정부의 반론이며, 범죄를 왜소화 하려는 의도가 보임.

4) 미군의 자국 병사의 옹호 -불평등 지위 협정의 유지- 일본의 사법 제도에 대한

저항, 두 나라간의 협정을 맺어 미군의 소추를 막음 - 국제 형사 재판소의 존재를 부정.

2005년 11월, 대 테러 합동 연습에 참가 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원에 의한 필리핀 여성 레이프 사건에서도 미군의 자국 병사 옹호의 자세가 현저히 보여짐.

4 군사적 국가 안전 보장을 탈 군사화 한 참다운 안전 보장으로 : 군사 확대 강화를 위한
한 기지 건설, 군대의 이동을 용서하지 않은 투쟁을 어떻게 연대 해 나갈 것인가?

1) 오키나와에 주둔 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괌 이설은 더욱 더 군사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오키나와의 염원은 아니다’.

미군 재편성에 일본 정부는 억제력의 유지와 지역 부담 경감이므로, ‘오키나와의
염원에 응답했다’라고 강조 하나, ‘미군 재편성은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이 되지 않
는다’ 5.15 어필(자료)

‘해병대 8000인 괌 이동’은 1)위험한 현재의 후텐마 기지의 대처 시설로 캠프 슈와
브 해안에 신기지 건설, 2)괌에 이동, 정비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 조건
으로 함. 군대의 해체야말로 평화로 이어지는 것임

2) 군사 주의, 군사력 안전 보장 체제를 바꾸어 나감.

일상의 군사화와 병사의 사인화, 국내외의 운동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 하여 감,
지원태세를 강화 함.

3) 침묵은 폭력의 보완이다. 성 폭력, 인권 침해의 피해자의 정신, 사회, 법적 지원
을 보장하여 나감.

4) 미군 우위, 젠더 편향에 불평등한 지위 협정을 개정.

폭력에 관한 법률의 정비, 피해자의 지원 체제. 국제 연합, 인권 회의에서(1993년
오스트리아 빈), ‘무력 분쟁 하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쟁 범죄이다’ -
‘군대 장기 주둔’에도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